

060522 주일설교 “오순절 성령강림” 요한복음(John) 14:25-27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 후, (이 부분을 헛갈리시는 분들이 계시요. 승천하신 후 또다시 50일이 아니라, 승천하신 후 10일 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강림주일입니다.

헬라말로 “Pentecoste” [펜테코스테]는 50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날을 영어로 Pentecost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에서 “오순” 도 50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강림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날이 바로 교회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독교 선교의 시작으로 보구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교회 창립 66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강림절이 우리교회 창립 기념일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교회의 3대 기념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강림주일(오순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강림절을 성탄절이나 부활절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A. 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사고는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성령이 존재치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처럼 중요한 성령강림의 의미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바로 깨닫고, 매일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

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날이라 하여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 주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일 년에 세 번씩 성전을 찾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세 번은 이스라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였습니다. 따라서 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사는 남자들이 가족을 데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기 때문에, 성령강림절에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루살렘이 북적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심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기록에 따르면, 그때 교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다고 전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굳이 그곳에 임하셨을까요? 그들이 모였던 곳이 다른 곳에 비해 더 거룩해서였겠습니까? 우리말로 "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품고"라는 뜻이에요! 다시말해서, 한 마음을 품고! 따라서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같은 장소에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들 모두 한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녔던 한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죠!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뿐이었습니다. 혹자들은 그 인원이 120명이다 아니다 이야기하지만 그 정확한 숫자보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온 엄청난 인파에 비하면 정말로 적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주말이 되고 주일이 찾아왔으니까 교회에 왔다 가는 복적거리는 인파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예배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귀 기울이며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좇는 낮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참만족을 얻지 못했고, 작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으나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한적한 시골 길을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은 유난히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가서 평화로운 삶의 비결이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 그의 마음속에 들어차 있던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 충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강림주일 이후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거예요. 이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방언이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방언은 성령의 여러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말해서 성령을 받았어도 방언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받은 사람이라면 공통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12:3).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으신 거예요. 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그런 마음이 진실됨에서 생겨나길 소원합니다!

존 스토틀가 말하길,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상에 보내기 전 성령을 먼저 보내셨다. 같은 순서대로 우리도 일해야 한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서 가운데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말로[파라클레이토스] 그 뜻은, (counselor, adviser!)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 상담자, 조연자!

힘든일이 있는데,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는데, 조용하게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믿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곳 어디서든지 성령님을 의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치 상담받고 돌아가듯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더라도 해결받고 돌아가게 됨을 저부터도 참 많이 경험하게되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감수성도 풍부 하셔서 우리의 상황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셔요. ‘나’ 라는 사람을 이해해 주십니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외로웠지? 내가 다 이해한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시편 모두가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다윗은 참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많은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는 그런 내용만 있진 않아요. (다윗은 그의 감정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늘 상담 받았다는 말도 되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6:13-14,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증거하는데, 그의 삶이 많은 시편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1,(현대인의 성경)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시편 43:2,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88:14,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너무 많아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1, 우리들도 상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로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인데도 자신이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스스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때론 합심으로 기도하고, 때론 조용할 때 주님과 단 둘이서! 기도도 하시고 (은밀히 보시는 주님). 통성으로도 묵상으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 다 아뢰는 것, 하소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한 하소연으로 시편이 끝나지 않는다는게 또 중요합니다. 시편의 결론 부분에서 그의 감정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속에 기록된 다윗의 결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5/42:11/43: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0:1-2,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16,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자가 필요해요. 아니 사실 모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세상인 것 다 알고 인정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소통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강림주일을 맞은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관심과 삶의 방향이 나아가길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본향에 이르기까지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